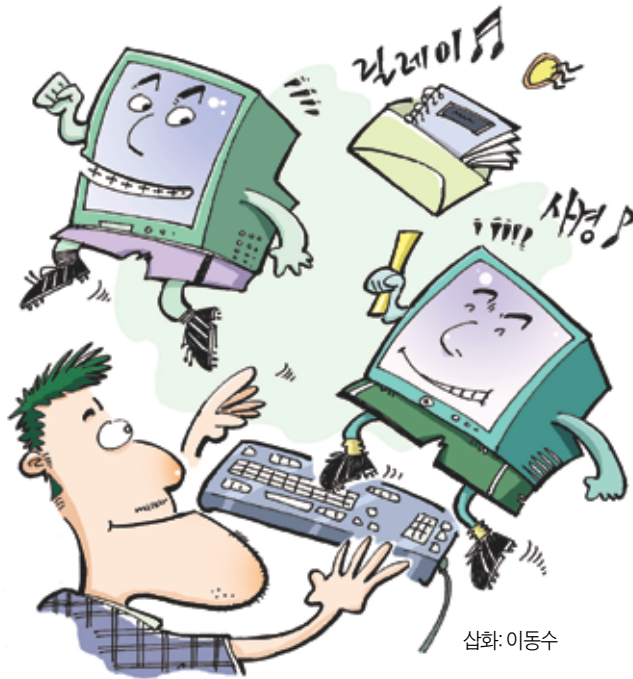


마음은 PC로 사경은 노트로 전해요

인연카페 '리플레이사경' 인기

경전(經典)의 내용을 필사(筆寫)하는 사경(寫經). 사경은 경전의 뜻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의 원력과 신심을 한 자 한자 정성을 들여 필사하면서 키워나간다는 점에서 불자들의 수행 방편으로 널리 행해지고 있다. 하지만 바쁜 일상생활로 특별히 시간을 내어 사경 수행을 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불교 초심자의 경우 경전 권권을 모두 사경한다는 것은 크게

법이 없을까 고민하다 평소 해보고 싶었던 사경을 회원들과 나누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카페 게시판에 올려 회원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를 본 회원들은 좋은 생각이라며 동참하겠다는 뜻을 전달했고 처음으로 <천수경>을 회원들이 나누어서 릴레이 사경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운영진을 중심으로 사경에 참여했지만 2년이 지



삽화: 이동수

우편 배송 방식으로 20여 회원 꾸준히 참여
천수경 금강경 이어 우리말 법화경 진행
“현대인 생활패턴 맞춘 새로운 신행문화” 주목

서원을 세우지 않으면 힘든 일이다. 그러나 인터넷 다음의 인연 카페(<http://cafe.daum.net/inyon>)에서는 릴레이 사경이라는 독특한 아이디어로 회원들과 함께 사경을 생활화 하고 있어 화제다. 인연 카페지기 아소다라가 릴레이 사경이라는 아이디어를 낸 것은 2004년. 불교라는 공통된 주제로 사이버 공간에서 동호회 활동을 하지만 법회나 성지 순례 이외에 특별히 개인 수행을 할 수 있는 방

난 지금은 20여명의 회원들이 꾸준히 릴레이 사경에 참여하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그동안 <천수경> <금강경>을 사경했고 지금은 우리말 법화경을 사경하며 회원들의 친목과 신심을 키우고 있다. 이같이 릴레이 사경이 꾸준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비결은 바로 사경 방식 때문. 우선 릴레이 사경 게시판을 통해 사경을 신청하면 카페 운영진이 경전과 사경 노트, 다음 차례 사경자 주소를 우편으로

배송해준다. 사경노트에는 사경하는 방법과 규칙, 사경의 범위가 명기되어 있고 자신의 소개와 발원을 적은 다음 사경을 시작하게 된다. 사경을 마친 이후에는 다음 차례의 회원에게 사경 노트를 우편으로 보내 주고 게시판에 사경을 회향했다는 글을 남기는 방식으로 사경이 진행된다. 릴레이 사경은 바쁜 직장 일, 또는 시간에 쫓기는 현대인들의 특성을 감안한 수행법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인터넷 신행 문화로 평가받고 있다.

인연 카페지기 아소다라는 “사이버 공간에서 불교 동호회를 찾는 사람들 대부분이 직장인 이거나 시간이 없어 오프라인 신행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사경을 체험해 보면 마음이 깨끗하고 맑아지는 것 같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회원들의 동참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우리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화사업’ 결과물

국사교과서 부교재로 개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원장 서병문)은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유영필)와 공동으로 10월 10일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에서 문화원형 콘텐츠화를 활용해 개발한 초·중·고 국사교과서 부교재인 <재미있는 디지털 한국사 이야기> 시연회를

가졌다(사진). 이번엔 편찬된 <재미있는 디지털 한국사 이야기>는 지난 5년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실시한 ‘우리 문화원형의 디지털콘텐츠화 사업’의 결과물들을 활용해 제작한 것으로 초·중·고 학생용과 초등학생용 2가지가 개발됐다. <재미있는 디지털 한국사 이야기>는 플래시애니메이션,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시각자료를 통해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꾸며졌으며 실제 수업과정에 맞춰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은 물론 각 과별 동거의 빠짐없이 퀴즈 및 놀이를 넣어 학생들이 보다 재미있게 내용을 익히고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우리 문화원형의 디지털콘텐츠화 사업’에 선정된 작품 가운데 20% 이상이 불교 관련 소재 작품이었다는 점에서 국사교과서에 나오는 불교 이야기를 멀티미디어로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 포교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미있는 디지털 한국사 이야기>는 내년 3월부터 전국에서 시범 사용되며 추후 해외교포를 위한 영문판 교재도 만들어질 예정이다. 서병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장은 “진흥원의 개원과 함께 가장 먼저 추진된 ‘문화원형의 콘텐츠화’ 사업이 우리 문화원형을 한곳으로 모으는 일뿐 아니라 이렇듯 교과 부교재까지 쓰이게 됐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부교재 개발에 나서 소중한 우리 문화를 청소년들이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엠파스서 베타버전 서비스

우리 민족의 역사, 자연, 생활, 사회, 종교 등 한민족의 문화유산을 집대성한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을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게 됐다. 검색전문포털 엠파스(대표 박석봉 www.empas.com)는 한국학중앙연구원(원장 윤덕홍)과 함께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베타 버전을 오픈했다고 10월 17일 밝혔다. 이번엔 오픈한 베타서비스에서 ‘팔만 대장경’을 검색해 보면 해인사, 가야산, 고려대장경 등의 자료는 물론 참고문헌 정보와 원본 이미지를 자세히 볼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검색한 자료를 백과사전 양식 그대로 자신의 블로그에 담아 사용할 수 있어 불교 정보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김두식 기자

우리 가족 영상 만들기 15

초보·전문가 모두 편리하게 사용

프리미어 프로의 인터페이스

영상 편집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프리미어다. 초보자에서부터 전문가까지 누구나 쉽고 다양한 효과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편집보드를 구매하면 번들로 제공됨으로 설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사용 설명서를 보면 된다.

최근에는 프리미어 프로 버전이 일 반화되어 이를 기준으로 인터페이스를 첫 화면을 살펴보면 크게 4개의 창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화면 좌측 상단에 메인 윈도우(Main Windows)는 여타 프로그램들과 같이 프로젝트나 파일을 불러오고 저장하며 최종 렌더링, 환경 설정 변경 등 프리미어 프로의 모든 작동이 가능한 곳이다.

그 밑에 있는 박스는 프로젝트 윈도우(Project Windows)는 편집할 영상을 만들 재료들을 관리하는 창이다. 캡처한 동영상 클립이나 음악파일, 혹은 사진파일 등을 이용해서 편집할 때 이같은 소스를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영상에 보여 지는 곳을 모니터 윈도우(Monitor Windows)고 한다. 이 창은 편집할 원본 소스들을 확인하고 자르는 기능을 수행하는 좌측의 소스 모니터와 현재 자신이 작업하고 있는 영상을 미리 볼 수 있고 우측 모니터로 구성되어 있다. 벡터 스코프(Vector Scope), 웨이브폼(Waveform) 등 색감 조정에 관련된 전문적인 기능도 할 수 있다.

하단에 길쭉하게 있는 타임라인 윈

도우(Timeline Windows)는 촬영한 영상과 음악을 배열하거나, 자막을 삽입하는 등 합성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다. 실질적으로 영상 편집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영상부분과 음성부분으로 나누어져 한 트랙을 이루고 있으며 계속해서 트랙을 만들 수 있다. 영상과 음성 이 분리되어 다양한 효과 작업을 수행하는 기능을 한다.

우측으로 숨겨져 있는 창들도 많다. 화면 상단에 윈도우 기능키를 누르면 화면에 보이게 할 수 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창은 바로 이펙트 윈도우(Effects Windows), 비디오나 오디오에 각종 특수효과를 간단하게 모아둔 곳으로 장면 전환 효과를 간편하게 영상에 삽입할 수 있다.

이펙트 윈도우에서 적용된 효과를 세부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하는 창은 이펙트 컨트롤 윈도우(Effect Controls Windows)다. 영상의 크기나 투명도, 프레임 움직임 등을 조정하여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 수 있다.

그 외에도 오디오 믹서 윈도우(Audio Mixer Windows)는 트랙의 소리 크기 조정, 좌우 소리 조정 사운드 레코딩 등 소리와 관련된 기능을 조절하는 창이며 히스토리 윈도우(History Windows)는 작업자가 이전까지 작업한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 실수로 파일을 지워버리거나, 특수효과를 잘못 적용한 경우 그 전 단계로 돌리는 기능을 수행한다. 인포 윈도우(Info Windows)는 영상 편집을 위해 불러온 비디오, 오디오, 사진, 자막 등의 길이, 종류 등의 정보를 알려 주는 역할을 한다.

김두식 기자

불교문화상품전문물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732-1520

클릭!
불교문화상품

가격: 애기관음(소) 15,000원
애기관음(대) 30,000원

연꽃좌대 애기관음

재질: 마블
크기: 애기관음(소) 높이 10cm / 애기관음(대) 높이 15cm
애기관음(대)의 좌대면에는 복장을 할 수 있도록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책상위에 모셔놓은 애기관음의 자애로운 미소가 불자들에게 편안함을 가져다 드립니다.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테이트형강판, 슬라브, 사철(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울·경기도 : 02)456-8831 경상도 : 010-7638-1117
강원도 : 019-396-1110 전라도 : 010-2311-0157
충청도 : 010-8674-2357

현대 칼라지붕공사

법회 참석 대중의 일체감과 효율성을 높이는 필수 교보재

법요집 · 기초교리집 과도 특별찬경 보급!!

법 요 집

기 초 교 리

정기법회, 수련대회, 불교대학, 불교학교 등 법당에 걸어 비치만하셔도 법회의 원활한 진행은 물론 신도님들의 불교기초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요집

- 삼귀의
- 천왕합니다
- 반야심경
- 입정
- 정법가
- 법문
- 정근
- 발원 및 축원
- 사홍서원
- 산홍가
- 기타찬불가

●기초교리

- 1. 불교란?
- 2. 부처란?
- 3. 대승과 소승의 차이
- 4. 사찰에서 쓰는 도구
- 5. 사찰경내 예법
- 6. 합장과 반배
- 7. 고두례
- 8. 예불문
- 9. 삼보
- 10. 삼귀의
- 11. 삼법인
- 12. 삼행
- 13. 삼학
- 14. 신도오계
- 15. 사성제
- 16. 사설법
- 17. 십이인연
- 18. 육바라밀
- 19. 팔정도
- 20. 보왕삼매론

법회의 일반적인 순서와 불자라면 꼭 알아야 할 기초교리가 담도 큰스님의 감수로 알차게 꾸며져 있습니다.

· 특별보급가 : 140,000원 (한정수량판매)
40쪽, 아이보라색 레자크지

· 구성 : 과도(법요집, 기초교리, 양면인쇄) 1개
걸이대, 지시봉

인터넷 불교 종합 서점
여시아문 02)737-0695
02)2004-8219,8220
국내·해외불교서적, 교양도서 <http://www.yosiamun.com>